

“建築樣式과 傳統”

崔 昌 奎 - 신진건축 대표

우리는 建築을 時間의 學問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에서 時間이 어떤 作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具體的으로 論議되지 않고 있다. 또 알려지지도 못하고 있다.

特定地域에 特定民族이 定住해서 長久한 時間동안 그 지역의 風土(주로 氣候)에 適應하면서 生活해 오는 동안 生活, 政治, 宗教, 軍事 등의 建築을 해 왔다.

그러나 始初에는 역시 創作이었음은 틀림없었다. 時間이 가고 모두가 그것이 좋았고 有用했고 해서 그러한 樣式이나 造型을 계승해서 生活化, 習慣化가 되고 또 時間이 흘러 그 民族의 建築의 特性이 되고 典型化되어 간다.

典型화된 건축은 또 時間이 흘러 그 대로 이어져 가면 그 건축은 한 民族의 傳統建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에서 時間性を 除外하면 傳統도 典型도 特性도 되지 못하고 始初로 되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전통의 계승이 云謂되고 전통을 내세우는 일은 애국과 애족의 同意語로 까지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시간성이 풍부히 加味된 건축(古建築)들 중에서 文化的, 歷史的, 記念的인 價値가 있다고 보는 건축을 선택해서 문화재, 보물, 사적 등의 이름으로 保存하고 파괴된 것은 보수해서 복원하는 것을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현재로서 무슨 가치를 잃어가자는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즉 傳統 속에서 今日性의 發見이라고 歸結지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문화재의 보존은 골동취미 밖에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과거에서 現代性의 發見은 우리가 현재 生活 속에서 새로운 創作에의 밑거름이 되고 建築樣式(특히 의장면에서) 造型의 기원으로 해서 현대건축이 이루어지고 후세들이 이것을 또 계승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現在性을 發見해서 다시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볼 때, 無限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곧 전통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변에서 전통의 계승이란 고건축을 그대로 撰寫하거나 복원하는 것, 樣式의 답습, 모방傳移, 類

似近似가 즉 전통의 계승인양 誤解되고 있는 것만 같다.

近代의 物質文明과 科學의 힘으로서는 人間이 要求하는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先人들에게는 극복 불가능했던 風土性(地域性과 自然環境)을 우리는 쉽게 극복할 知識과 能力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아랍이나 美國에 지을 수도 있고 南方이나 北極의 건축을 서울에 지을 수 있다.

그러하다면 傳統建築樣式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던 地域性과 自然條件은 오늘에 와서 극복되었다고 볼 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傳統에서 今日性을 찾아서 이어온 現代建築) 건축들이 우리 후세들에 의해 다시금 전통건축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때 전통의 本質인 時間, 氣候가 그 性格이 미약해져 갈 것이 틀림없기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그 證左로서는 近者 우리들이 말하는 過渡期樣式이나 國際主義樣式이 모두 암중 모색하는 전통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에서 이탈해 보자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발버둥침은 무엇이며 레이트 모더니즘(Late-Modernism), 記號論이나 隱喩論은 무엇때문에 대두되어 오는 것일까?

原初에서의 今日性의 索出이란 그 얼마나 難事임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건축의 계승이라는 요란한 口房은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얼마만한 今日性을 현대건축에 反映시켰는가를 猛省해 볼 때도 된 것 같다.

1900年 中期부터 世界建築界가 모색이나 전통을 겪은 결과가 産苦 끝에 出生된 玉童子가 겨우 많은 의문과 혼란과 論爭이 벌어지고 있는 脫現代主義樣式이 隱喩論的, 記號論的樣式이었다면 玉童子는 커녕 미숙아 밖에 되지 못하고 아직도 전통중이고 未久에 태어날 育동자를 낳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나 할까? 하여간 건축이 연속성을 가지고 永劫으로 이어져 가는 試圖의 進行事일진대 우리는 우리의 전통정령이 우선되어야겠다고 여긴다. 우리는 李朝五百年間

지어진 소위 이조건축을 古建築 또는 韓國傳統건축이라고 보고 있는 듯 하나 開國 4천년 이상의 時間性에서 근 오백년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건축이 과연 전통건축이라고 할 만한 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는나에는 회의가 생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時間性이 있어야 傳統이라고 할 수 있는나에 대한 해답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數字나 圖表로 表現할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문제는 開國年數의 2분의 1이라는 시간이 그 民族, 그 國家의 전통이 될 것이다. 전통에 필요한 절대시간 따위가 있을리 없거니와 적어도 그 建國이 原始라 해도 반정도의 時間性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그 民族이 그 地域에 建國하고 長久한 時間 동안 生活하면서 겪어온 체형에서 恨·열·슬기·시름·보람·맛·희노애락의 응고된 것들이 술이 빚어지 듯 빚어져 각종 생활분야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서 그것들이 型이 되고 色이 되고 맛이 되고 체질화된 것이 전통이라고 할진대 文化藝術分野에서 전통계승 이전에 傳統發見 定立이 우선되어야 하겠고 다음에 그것에서 今日性을 창출해서 오늘의 文化創作에의 기초로 한다면 후손들은 우리들의 今日의 創作을 먼훗날 전통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현재 우리가 전통건축을 定立 연구하는 과정에도 많은 저항을 느끼고 있다. 즉 우리史上 요즘처럼 비대해진 行政權과 요령부득의 경제적 힘포름 바꾸니에서 歷史의 古證은 무시되고 한 마디의 항변도 없이 古建築 복원이 변형 변색되어 가고 또 現代建築의 造型면에서도 그 무서운 힘은 여지없이 作用되어 특정인의 저속한 취미나 기호가 태연하게 條例로 施行되는 따위의 상황은 眞正한 전통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今日性을 發見하려고 할 때 변질된 전통에서 무엇을 摘出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또 찾아냈다고 해도 그 反映에 제한과 저항이 있다면 무슨 意味가 있을 것인가. 때문에 “建築이란 그 社會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以上도 그 以下도 될 수 없다”는 抽象的 結論 밖에 내릴 수 없는 것이다. <*